(V) 하나님과 친해지기 유리한 은사

(고전12:7~11)

7.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10.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11.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지금 오늘로써 다섯 번째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사도바울이 열거한 노트를 하나씩 조목조목 살펴봤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으로, 방언의 은사와 방언 통역함의 은사를 함께 이야기하게 되는데, 아홉 가지 은사로 표현됐습니다만 사실은 더 세분화 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은 은사라고 하는 것은 7절에 성령을 각 사람에게 나타내심, 그러니까 성령이 나타나실 때의 모습을 유형별로 나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성령은 나타나시게 돼있고, 그렇게 나타나시는 성령의 역사는 은사로 표현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은사라는 말로 유형별로 세분화 시켜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방언이라고 하는 거, 헬라어로는 '글로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신체상의 혀를 말하기도 하고 언어라는 뜻의 단어이기도 합니다.
영어에서도, 'tongue'이라고 하는 말 이게 바로 '혀'이면서 동시에 '언어'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이지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방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강림 때에 나타난 방언과, 우리가 지금까지도 나 자신이 은사를 받고 있고 주변에서도 그런 은사를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비한 언어로써의 방언, 도대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방언, 내 입에서 나오는데도 우리가 그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그런 방언, 이 두 가지 방언을 얘기합니다.

먼저, 외국어로서의 방언은 은사로서의 방언이라기보다는 사건으로서의 방언이라고 보는 게 더 좋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오순절 강림 때 말고는 다시 찾아보기가 힘들고, 그리고 교회사적으로도 외국어 방언이 주어졌다는 이야기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강림 때 일어났던 사건으로서의 방언이라고 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은사라 그러면, 차별 없이 주어지는 게 은사니까 지금도 반복되어야 되고 확인될 수 있어야 되는데, 쉽지 않다는 얘기에요.
그러나 예를 들어, 시골에 계신 할머니가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인데, 영어를 할 수 있는 영어방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굳이 배제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그러니까 오순절 때 일어나고 2000년 동안 안 일어났어도 오늘 이 순간, 충청북도 청주에 있는 어느 조그만 개척교회의 할머니 권사님에게 영어방언이, 중국어방언이 터질 수 있어요.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는 없지만, 하여간 사건으로서의 방언이다.
이렇게 한 번 일어나고는 그 유래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이 방언이지만, 그 오순절 성령강림 때 일어났던 이 외국어 방언사건이 지니는 신앙적 의의는 2000년 교회 역사를 꿰뚫고 지금까지 도달해서 나에게까지 그 의의가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외국어를 방언으로 받지는 않지만, 그때에 일어났던 외국어 방언사건이 갖는 중요성과 가치는 지금 나에게도 그대로 의미 있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외국어 방언사건이 나와 관계에서 갖는 신앙적 의의가 뭡니까?
한 마디로 언어정복의 사건입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시면서 처음으로 나타난 사건이 뭐였냐 하면, 각 국의 외국어로 복음이 증거된 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생기는 벽두에 일어난 일이 바로, 외국어로 복음이 증거 된 사건입니다.
이 현상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이것입니다.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냐?
이 의미는, 복음이 이제부터 전 세계의 언어를 정복해 나갈 것이라는 선언이었고 공표였다는 겁니다, 전 세계 언어정복.
복음의 언어정복을 공표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언어정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면서 사용하는 모든 언어는 어느 나라의 언어든지 간에, '좋다, 참 좋

다’라고 하는 판단과 느낌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아! 그거 참 좋은데? 아! 참 좋다’라는 판단과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느낌이 언어의 왕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느낌과 ‘좋다’라고 하는 판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모든 언어의 특징이고 본질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제 내일이면 우리 자녀들이 수능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다 해 봅시다.
‘우리 아이가 수능시험을 잘 봤어요.’ 이 말은, 그래서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이가 수능시험을 잘 못 봤어요.’ 이 말은, 그래서 안 좋다는 말입니다.
또, ‘참, 요즘 장사가 잘돼요’ 이 말은, 그래서 좋다는 말입니다.
‘장사가 잘 안돼요’ 이 말은, 그래서 안 좋다는 말이에요.
‘요즘 영~ 몸이 찌뿌둥합니다’ 그래서, 안 좋다는 말입니다.
‘나는 자동차가 있습니다’라는 말은, 자동차가 있어 편리하고 그래서 좋다는 말입니다.
‘어~ 비가 오네!’ 이러면, 비가 와서 안 좋다는 것이고, ‘와~ 비가 온다!’ 그러면, 비가 와서 좋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영어든 중국어든 한국어든,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모든 언어는 좋다는 느낌과 판단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라 이거에요.
그러니까 모든 각국 언어들의 임금이 누구냐 하면, 내 마음의 판단과 느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좋다는 느낌과 판단의 자리가 바로, 모든 언어의 임금이라는 겁니다.
모~든 언어는, 이 좋다는 느낌과 판단을 위해 봉사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 성령강림 때에, 각 국의 외국어를 통해서 전해진 것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나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게, 십자가 복음사건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기쁨의 소리이고 좋음의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외국어로 각 나라에서 사람들이 좋다고 느끼고 판단하는 일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던 언어들이, 복음이 이 세상에서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복음에 의해서 정복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쁨의 소리이니까, 좋음의 소리이니까.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동안은 좋음이라고 하는 임금님의 자리에 여러 가지가 들어와서 군웅활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영역의 여러 패자들이 있었던 거지요.
예를 들어 돈과 관계되는 능력에서는, 돈을 많이 벌어야 좋다고 하는 내용이 좋음의 권좌에

앉아 있었고, 또 출세에 관한 영역에서는 장관이 된다고 하는 것이 좋음의 자리에 앉고, 또 그보다 더 높은 대통령이 됨이라고 하는 사실이 좋음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또 자식과 연관 되어서는 좋은 대학에 들어감이라는 내용이 좋음의 자리에 앉아 있었고 임금의 권좌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것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완전히 통합되어 버립니다.
마치 춘추전국시대처럼 좋음이라는 권좌에 앉아 있었던 임금이 가지각색이었는데, 돈 벌어서 좋고, 건강해서 좋고, 자식이 잘돼서 좋고, 출세해서 좋고, 승진해서 좋고… 좋음이라는 권좌에 앉아 있었던 왕의 종류가 여러 가지였는데, 복음이 전파되고 나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마음에, 좋음이라는 권좌에 앉게 되는 임금이 단 하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아! 복음 때문에 참 좋다, 어? 우리 자식이 수능점수가 잘 나왔네'
또 '아! 복음 때문에 참 좋다, 어? 우리 자식이 수능점수가 못 나왔네'
'아! 복음 때문에 참 좋아, 어? 장사가 잘 되네'
'복음 때문에 참 좋아, 어? 장사가 안 되네'
그러니까 좋음의 일은 복음으로 끝나고, 그 다음의 일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좋다고 여겨지는 것을 우쪽으로 하나님의 뜻이 전개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안 좋다고 보는 것은 좌쪽으로 전개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항상 기쁘고 좋고, 그렇게 좋은 것이 해결되고 나니 모든 언어는 이제 그 좋음이 해결된 뒤에, 하나님의 뜻을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일에 사용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신앙적 변화를 공표한 사건이, 각국 언어로 방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오순절 때의 사건이고 바로 그 의의라는 거예요.
이것과 이해할 수 없는 방언이 무관한 게 아닙니다.
따로따로 생각할 때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에서 뜻하는바 신비한 언어로서의 방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방언 은사는 대체 우리에게 어떤 신앙적 의의를 지니는 은사냐 하는 겁니다.
방언과 연관된 체험, 이론, 주장, 어마어마하게 많고 복잡하고 서로 상충하고 갈등을 빚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 이런 거대한 방언에 관한 담론을 일단 다 뒤로하고, 신학적 신앙적 정공법을 통해서 방언에 접근을 합니다.

신학적 신앙적 정공법이라는 게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했으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확정했으니까, 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유일한 지식인 이 십자가를 통해서 방언에 대한 이해를 접근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가장 타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십자가 복음이 좋음이 되는 구체적인 이유는 뭐지요?
우리 앞에서 한 얘기와 연관 지어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순절 방언과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방언을 연관 짓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좋음이 되는 구체적인 이유는, 십자가에서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죽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와 관계되고 있는 구체적인 대상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죽음으로써,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에 대해서만 우리 마음이 살게 되기 때문에 십자가가 복음인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좋음의 이유는 뭡니까?
십자가는 그 결과적으로 좋음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에게 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이니까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좋음의 이유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건이 아니세요.
물건 같으면, '아! 좋다' 받자마자 좋다는 느낌과 판단이 곧바로 생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생각이 있으시고, 그분의 의견이 있으시고, 말씀하시고, 그분의 소원이 있으시고, 우리와 같이 희로애락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으로 그분이 좋음을 알려면, 필수적으로 그분과 사귀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과의 교제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TV에서 나오는 스타를 보고 첫 인상에 '아! 참 좋다'라고 느낄 수는 있지만, 그것은 혼자 느끼는 느낌이고 짝사랑의 느낌이지, 교제를 통해서 서로가 친밀한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좋아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의 진짜 좋음을 마음으로 알려면 사귀어야 돼요.
사귀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 생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적으로 사귄다는 것은 결국,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모든 말씀은 궁극적으로 십자가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말씀이 하나님에 관한 말씀인데, 그 말로서의 하나님에 관한 모든 내용들이 가리키는 실제 존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니까, 결국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실제 존재에 우리 마음이 도달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이기 때문에 말씀묵상의 귀결은 십자가로 귀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결국,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먼저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할 때는 죽는 겁니다.

내 자식이 잔뜩 걱정거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죽는 거예요.
근데 이미 걱정거리로 들어와 있는 자식이 내 마음에서 사라지고, 자식에 대해서 죽으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끙끙 매고 십자가를 통해서 자식에 대해 죽고, 내 마음이 다~ 회수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기도하는데… 자식뿐입니까? 사업도 그렇고, 사업에 대해서도 죽어야 되지요,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도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서처럼, 결국 확장시키면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것이면 다, 꿈과 비전에 대해서도 죽고, 목회에 대해서도 죽고 다~ 죽어야,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서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죽는데 시간이 엄청 걸려요.
이제부터 세상에 대해서 마음이 죽었으므로, 이제부터 하나님 한 분에 대해서만 살 수 있고, 하나님 한 분과의 교제가 시작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하나님과 사귀어야 되는데, 인격적인 교제라는 게 서로 대화를 통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말이 없어져 버렸어요.
내 속에서 언어가 사라져버렸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식에 대해서 죽는 바람에, 자식과 연관된 모든 언어가 죽어버렸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죽는 바람에, 사업에 연관된 모든 언어가 죽었어요.
그 전에는 기도를 어떻게 했냐하면, 사업이 이렇고 저렇고 이러니까 사업 잘되게 해 주시고, 사업 잘되게 해주심으로 선교 사업에 쓸 수 있게 해 주시고…
사업과 연관된 엄청난 많은 언어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시간이 충분했는데, 십자가에서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져버렸어요.
존재에 대해 죽고 대상에 대해 죽으면서 언어가 같이 죽어버린 겁니다.

이제 하나님과 진짜 사귀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사귀어야 되는 이 순간이 딱 왔는데, 아! 엉덩이가 근질근질하고 도저히 더 이상 앉아있기도 힘들고 죽겠어요.
이때 주어지는 게 방언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언어에요.
방언을 가지고 장사를 하겠습니까, 방언을 가지고 자식을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방언을 가지고 학교에서 가르치겠습니까, 방언 학원을 차리겠습니까.
아~무 용도가 없어요.
오직 말씀을 묵상하다 십자가로 귀결되고, 십자가로 귀결돼서 세상 모든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언어가 다 죽은 상태에서, 이제 영이신 하나님, 말씀으로는 내 언어로는 포착할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언어가 없음으로써 인격적 교제가 어려운 이 상황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입에 방언을 담아 주십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각할 수가 없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그 언어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 영이신 하나님이 나의 인격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점점 깊어집니다.
방언을 안 받고도 교제가 깊어질 수 있어요.
십자가의 그 지점에서, 세상에 대해 완전히 죽은 그 지점에서, 계속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세상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들어오질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마음에서 놓자마자 세상은 홍수처럼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계속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내 영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든 거예요, 불리한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누가 더 친해지느냐는 시간싸움입니다.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는 삶 속에서 바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핑계 댈 거 없어요. 다~ 바빠요, 다 바빠.
단지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다르게 바쁜 이유는 뭡니까? 다른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바쁜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시간을 잘라내는 거지요.
결국은 시간싸움입니다, 시간싸움.
근데 이 시간싸움을, 시간을 벌어놓고 와서 십자가에서 다 죽고 나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5분을 견디기가 힘들어요, 5분을 견디기가.
이때 방언이 터지면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밤이 맞도록 하는 기도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기도가 진행되는 동안에, 나는 몰라요 내가 인식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영이신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교제에 깊이깊이 들어갑니다.
인격적인 교제에 깊이깊이 들어가는 결과가 뭡니까?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모든 은사들이 더 확률적으로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가 우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의 일처럼 여길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또 방언의 은사가 다~인 것처럼 얘기할 거도 아니에요.
방언이 아니라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거기에 숙련 돼있고, 마음이 거기에 몰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또, 방언이 아니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밤이 맞도록 하나님과의 교제시간을 가질 수가 있지만,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 방언이 주어질 때,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갈 때 나타나는 일이, 하나님의 좋음에 대해서, 느낌이 점점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의 좋음이 깊이 뿌리를 내릴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도 흔들리지 않고, 돈 적게 벌어도 불평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음이 깊이 뿌리내리면 내릴수록.
가난하게 살아도 슬프지 않아요, 부자의 여건이 주어져도 그 부자의 여건에 휘말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좋음의 뿌리가 점점 깊어질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방언의 은사를 받을 때 훨씬 유리해지는 그런 은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방언이라는 게, 들어보면 정말 외국어처럼 아주 멋있게 하는 방언도 있고…
제가 영어를 막~ 소리 내서 읽었더니, 할머니가 살아생전에 '너 어쩌면 그렇게 중국어를 잘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에게는 방언처럼 들린 거지요.
이렇게 외국어처럼 들리는 방언이 있고, 또 어떤 방언은 랄랄랄랄랄랄랄, 따따따따따따따, 또 어떤 방언은 딱따따닥딱딱따닥딱딱, 이런 방언도 있어요.
제가 들어본 거예요.

또 저희 어머니는, 얄라리욜라 얄라리욜라 얄라리욜라, 계속 얄라리욜라 욜욜욜랄라라라 얄라리욜라, 계속 이러고 계셨어요.

그러니 저런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통역의 은사가 있습니다.
방언통역의 은사는 실제로, 다른 은사들에 비해서 사도바울의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다 보면 그렇게 대단한 유익을 주는 은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방언이 통역될 수 있다는 거, '랄랄랄라라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 통역될 수 있다는 말은 뭘 뜻하는 겁니까?
단순한 현상이거나,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통역될 수 있다는 것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고,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그 사실, 방언통역의 은사가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확정할 수 있는 게, 방언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언어라는 걸 확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방언통역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저는 방언도 받았어요, 그러나 방언통역 은사는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 방언통역 은사의 의의가 뭐냐 하면, 아! 내가 그 은사를 못 받았지만, 방언이 통역될 수 있다는 건,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이고, 랄랄랄랄라, 뚜뚜뚜뚜 하지만, 그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 그 소리가 내 입에서 나오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류가 가능하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인격적인 교류라는 것은, 의미 있는 언어들이 오고갈 때 교류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마치 개가 짖는 것처럼, 원숭이가 끼끼거리는 것처럼, 닭이 우는 것처럼 그런 소리만 낸다 그러면 인격적인 교류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방언통역의 은사가 있다는 사실이 바로, 방언이 영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성령이 주시는 언어라는 사실을 확정해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방언의 은사!
우습게보지 마시고, 너~무 그것에 치중하지도 마시고, 좌우로 치우침 없이 밸런스 있는 이해를 통해서, 생활화할 수 있다면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아주 큰 복을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어찌하든지 좋음이라는 권좌에 앉으실 수 있는 유일한 임금이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으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활용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한없이 한없이,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새롭게, 더욱 더 깊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